



◇용인노인요양원 공동작품 '한반도'.



◇마포경로원의 공동작품 '인형'.



◇용인노인요양원 노년기(75세)의 '짚신'.



◇인천제가노인복지센터 공동작품 '팔각함'.

연꽃마을 노인들과 자원봉사자 3만 5천여 명이 여름 내내 정성을 쏟아 만든 마술, 공예품 1만여 점이 수도권 일대에서 한달 일정으로 순회 전시를 시작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시장 각함이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잠실롯데백화점, 안양 문화예술회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일산 호수공원꽃전시관 등 4곳에서 '2001 노인작품 전시회'를 마련한다.

경기 10곳, 서울 4곳, 인천 2곳, 대구·광주·청주 각 1곳 등 전국 19개 노인복지시설과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자치구 노인간부대학 등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난 7월부터 개인 혹은 공동작업으로 제작했던 민속공예, 죽공예, 십자수, 목공예, 전통 도예, 뜨개, 서예, 종이접기 등 22개 종목 1만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질신과 지계를 함께 만들던 요양원 친구들이 무더위에 지칠 때 서로 격려했던 기억이 너무 좋았다"며 "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된다는 생각이 가슴이 설렌다"는 노년기(75) 용인노인요양원 할아버지의 말처럼, 1만여 작품 하나하나에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함께 한 도반들의 우정과 웃음이 배어 있다.

안양경로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출품작인 소형 나무의자를 이용한 장식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아픈 몸을 걱정하고 어루만지는 도반이 됐다. 경로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작품 제작에 들어가면서 물리치료?를 서로 양보하는 등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들이 나무를 자르고 의자를 만들어 나스 침을 하는 동안 할머니들은 그 옆에서 의자를 장식할 꽃과 소품을 만드는 공동 작업을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정을 쌓은 것이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공동작품 '종이인형'.

할머니 할아버지 숨겨 "아름다운 노을 보는듯"

연꽃마을 '2001 노인작품전' 1만여점 출품



◇마포제가노인복지센터 공동작품 '요구르트병탑'.



◇용인노인요양원 공동작품 '부처님'.



◇평택시노인요양원의 할머니들이 뿔가리를 이용해 시계를 만들고 있다.



◇다위도 잇은채 목공예의 재미에 빠져있는 안양경로원의 할아버지들.

- 6~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 13~15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 19~20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 28~29일 일산 호수공원

이다. 이외에도 할아버지들 "작품을 만들기 힘들어도 재미나서 아픈 줄도 몰랐고,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대구동구의료복지센터의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한지공예 전문가가 되었다. 한지 자르기, 풀칠하기, 나스 칠하기 등의 제작 과정이 손에 익어 인근 상가에서 납품하라는 제안도 받았을 정도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대형작품인 호수공원 미니어처 제작 과정에 주역공급고등학교 전기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노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는 질신, 심태기, 대나무 원두막, 대나무 대금, 풍지계 등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사라져 노인들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추억의 공예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화 지킴이'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돋보인다. 또한 종이 꽃송이 3천개로 만든 대형 한반도 지도, 바둑알만한 색종이 2천5백장을 모아 만든 대형 태극기, 한지로 만든 사할 모형, 신문지를 붙여 찍서 모아 만든 석가탑 등 이색 작품들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김민정 기획총괄팀장은 "노인들이 작은 일일이라도 생산 활동에 직접 참가해,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노인 복지"라며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의 폭을 넓힌 것은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연꽃마을의 '2001 노인작품 전시회'는 6~10일 서울 잠실롯데월드에서 시작으로 13~15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19~20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28~29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순회 전시된다.

오종욱 기자 gob3000@buddhania.com

전시회 연 각현스님

"어르신들의 무한한 잠재력 드러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는 가장 능동적인 노인복지입니다."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4개 도시에서 노인작품전시회를 마련한 연꽃마을 이시장 각현 스님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심어주기 위해 연꽃마을 식구들이 한 몸이 됐다"며 "창조적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노인상 정립이 이번 전시회의 기회 의도"라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연꽃마을은 지난 5개월 동안 노인들의 작품 제작을 도와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초빙하는 것은 물론 전시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쏟았다. 법인의 씬스미를 줄여 8천여 만 원을 모았고, 경기도로부터 노인복지기금 2천여 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노인작품 상설 전시장으로 별관을 무료로 빌렸다. 총 소요 경비는 1억 6천여 만 원.

스님은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노인들의 숨은 기량과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계속 살려나가 '생산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님은 "3백여 연꽃마을 직원들과 8천여 자원봉사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번 전시회는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처럼 보시의 공덕이 다음 전시회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함초샐러드



서산의 연암선 천장암(경희) 스님이 장좌불와하시고 그의 제자 수월 스님이 출가한 곳에서 비명소리가 새벽의 적막을 깬다.

큰스님 처소의 비명소리에 수월 스님은 뉘뉘로 뛰어갔다. 방 안에서 큰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알았소 알았소! 이 팔 좀 놓고 이야기하시오." 불이 켜지더니, "밖에

수월이 외 있는가. 들어오게" 방안에선, 경희 스님(1849~1912)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주무르고 계셨다. "지금도 팔이 아프군. 자기 머리가 죽어간다고 어서 살려 달라는 거야... 아무튼 행장을 꾸리게."

수월 스님은 큰스님 뒤를 맡았어 따랐다. 한참을 기다보니 온몸이 젖은 여인이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다.

혈액정화...부인병 효능

바로 몸에 나타난 보살의 머느리였다. 시집은 지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못 낳고, 자궁의 통증까지 심해지자 살을 포기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경희 스님은 갱별에 지천으로 있는 자주빛 풀을 한 아름 뜯어, 당시 입으로 잘게 씹어 즙을 만들어 그 여인의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여인의 손이 움직이면서 눈을 떴다.

이 자주빛 해초의 옛 이름은 나뉘재, 지금은 '함초(鹹草)'로 부른다. 그 후 여인은 함초즙과 함초죽을 구

준히 먹고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 고대하던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 지금도 서산 바닷가의 할머니들은 함초를 가리켜 월경초라 부른다. 그만큼, 부인들의 건강에 탁월한 효험을 보였던 것이다.

함초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10월에 열매가 익는다. 오염된 바닷물 100분을 정화하는 데 함초 5g이면 즉할만큼 정화능력이 탁월하다.

■ 약성적 연구가 <산사기 7권 특별한식단이 있다>(모세의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오이 1/2개, 토마토 150g, 상추 10장, 오렌지 1개, 함초 10g

요리법 ① 함초의 딱딱한 부분은 베고 부드럽고 오동도동한 줄기만을 잘라낸다. (함초는 그 자체가 소금간이 되어 있다) ② 오렌지와 토마토, 상추, 오이를 먹기 좋게 썬다. ③ 큰 그릇에 함초를 섞고 오리엔탈 소스를 끼얹어 접시에 담아낸다.

재료 ①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속변을 배출하며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한다. ② 각종 부종의 치료 및 만성 피로와 비만 해소 ③ 자궁 근종과 각종 부인병에 좋다.

